

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옛날 국수 공장을 가다

예전에 어느 오래된 국수 공장을 간 적이 있었다. 치렁치렁한 국수발을 햇빛에 내다 말리는 광경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려 주었다. 주인의 얼굴은 밝지 않았다.

"누가 요새 이런 국수 사 먹냐요. 마트에 가면 쌀 국수가 널렸는데." 낡은 기계였다. 어린 시절에는 국수 가게가 동네마다 여럿 있었다. 아마도 경쟁도 했을 것이다. 어느 국수 가게가 더 맛있었는지, 더 싼지 놓고. 이제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가게다. 주인이 낡은 철물로 된 기계를 둘러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기계에 걸었다. 해소 기침하듯, 기계는 쿨럭이며 돌아갔다.

"기계 부속을 구할 수 없어서 직접 깎아 만들거나 한다우. 이제 다 된 기계지."

공장은 불량이 없어야 하고 생산성이 높아야 한다. 생산성 면에서 이런 가게는 할 말이 없다.

"많이 만들어 봐야 팔 데도 없고. 그저 이 기계 고장 나기 전까지만 하려고 해요."

그는 인근 지역에 몇 개의 가내 국수 공장이 있는지 다 알고 있었다. 가끔 전화 연락이 오면, 누군가 그만두는구나, 하고 알아듣는다고 한다. 다행히 레트도며 복고풍을 타고 언론에 소개되어 손님이 근근이 이어진다.

"동네는 죄다 아파트로 바뀌고 재개발되어 단골이 거의 없어요. 젊은 분들은 이런 국수 공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한때 이 골목에 사람이 많이 살았고, 그들이 우리집 국수를 많이 먹었지만."

주인은 말꼬리를 흐렸다. 그나마 요즘은 꽤 바쁜 편에 속한다. 역시 언론이다. 동네 손님은 거의 사라졌지만, 신문이나 방송에 소개된 걸 보고 멀리서 찾아온다. 그 덕에 하루도 쉬지 않고 생산을 하기는 한다. 국수값이 역시 마트보다 다소 비싸다. 손국수의 수고를 생각하면 비싼 건 아닌데, 뭐든지 '가성비'를 따지는 시대에 잘 먹히지 않겠지 생각하니 쓸쓸해진다.

"국수는 요새가 대박이에요. 여름에 팔 걸 미리 만들어야 해요. 여름에 비빔국수를 많이 먹었잖아요. 장마철이 오기 전에 다 만들어 놔야 해요. 비가 오는 철이 되면, 대개 생산을 안 해요. 말릴 수가 없으니까. 태양 밑고 만드는 국수지요. 하느님과 동업하는 거예요."

장마철, 여름 다 끝나고 가을벌이 좋아질 때쯤 다시 만든다고 한다. 그때까지 쌓아둔 재고가 다 소진되기는 할까.

"뭘,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는데 가을 일을 지금 걱정은 안 해요(웃음)."

밀가루 봉지 같은 갈색의 종이에 돌돌 말린 국수를 보니 반갑다. 우리는 늘 잔치국수를 먹어왔으니 거기서 거기 같은데 미세하게 유행이며 모양이 바뀌고 있다. 우선은 가내공장이 급격히 줄어서 전국적으로 스무 개가 안 되는 수준이다. 있는 가게도 하루가 다르게 없어지고 있다. 다음으로는 면의 굵기다. 예전의 가느다란 소면(小麵) 또는 세면(細麵)은 요새 명함도 못 내민다. 마트에 가면 대형 공장에서 생산하는 아주 가느다란 면이 대세다. 옛날엔 소면이었던 것이 요새는 중면이라고 부른다. 또 '우동면'이라고 부르던 굵은 면은

거의 안 팔린다. 마트에선 사기도 힘들다. 작은 가내공장에나 가야 조금 볼 수 있다.

"옛날엔 이런 굵은 국수를 많이 먹었는데, 요새는 가는 걸 더 좋아하지요." 국수는 반죽기로 치대어서 쫄깃해지고, 그 반죽을 몇 번씩 접어서 포개고 다시 접고 하는 과정에서 더 쫄깃함을 얻는다. 그걸 기계에 걸어 국수를 뽑는다. 방면은 반죽을 기계에 넣고 압력으로 눌러 뽑는다. 그걸 압출면이라 한다. 잔치국수를 만드는 방식은 압연 절면이라 부른다. 눌러서 자른 면이란 뜻이다. 칼국수도 같은 방식이다. 잔치국수는 다만 기계의 힘을 빌려서 나오는 산압면과 국수를 의미한다. 이런 소면, 세면은 1950년대 이후 밀가루가 싸게 공급되면서 우리 음식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중국, 일본 등에 비슷한 국수가 있긴 한데 우리 잔치국수는 거의 독보적이라 할 만큼 크게 발전했고, 많이 먹어왔다. 잔치국수라는 이름을 얻은 것도 특이하다. 결혼식이나 잔치에서 흔하게 이 국수를 먹었다. 싸고 대접하기 좋았기 때문이다. 결혼식 피로연이 뷔페로 바뀌면서 이런 가내 국수 공장이 제일 큰 타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해 주시던 가는 잔치국수. 갑자기 울컥해진다.

전국에 가 볼 만한 이런 가내 국수 공장이 몇 있다. 구룡포의 제일국수공장, 예산의 쌍송국수공장, 그리고 위에 나온 집은 서울 중랑구의 용마산역 1번 출구 근처에 있다.

<음식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양무열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돌발진

상이 생기기 되는데, 가려움과 물집 또는 농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발진은 대개 1-3일 후 사라진다. 대부분 환자는 고열 외 특별한 증상은 없으나 드물게 경련과 콧물, 구토, 설사 등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고열 외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발병 초기에 진단이 쉽지는 않다. 진단은 발열과 발진을 동반한 질한 중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홍역 등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빨간 장밋빛 발진이 생기는 돌발진과 달리 홍역의 피부 발진은 적색 또는 적갈색을 띤다. 또한 돌발진은 열이 떨어지고 발진이 시작되면 천천히 회복되지만 홍역은 발진 상태에서도 증상이 지속된다.

돌발진은 연령과 병력, 진찰 소견을 종합해 진단하며 6-7형 사람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 혈청학적 검사, 바이러스 배양, 항원 검출, PCR 검사 등으로 확진하게 된다.

한편, 근래 오미크론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영유아와 아동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일반 돌발진과 코로나19 감염을 혼동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돌발진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의 차이점은 영유아 돌발진은 초기 고열과 열이 내린 후 발진이 형

성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은 2-14일의 잠복기를 거친 뒤 37.5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나며 간혹 무증상 감염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

치료를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 외 특별한 것은 없고 대부분 자연 치유된다. 열이 많이 발생하면 적절한 수분 공급을 해주어야 하며 해열제를 투여, 체온을 조절하면 된다. 면역이 억제된 환자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한다. 특히 돌발진은 전염성이 있어서 발진이 사라질 때까지 다른 아이와의 접촉을 삼가야 한다.

돌발진의 가장 큰 특징이 발병 초기 40도에 가까운 고열이 수일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침착하게 대응하면 된다.

부모들은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는 지 잘 살펴야 하며, 만약 열성 경련이 지속되면 뇌 신경 손상이 우려되는 만큼 신속히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 돌발진은 대부분 결과가 좋다.

돌발진의 예방법도 코로나19나 감기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사람의 침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평소 손에 손을 잘 씻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고



선양규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

귀(歸)농산어촌 최적지 전남으로 오라

이다. 최근에는 한적한 농촌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젊은 도시민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3040세대 사이에선 일주일에 4-5일 도시에 머물다가 2일-3일은 시골을 찾는 '오도이촌'이나 '사도이촌'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사실상 그 뿌리인 '농촌에서 살아 보기'는 도시민들이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며 일자리와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전남도가 최초로 시작했다. 이후 전국 88개 시군에 104개 마을이 이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전남 각 지자체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러스틱 라이프를 추구하는 젊은 도시민들을 겨냥한 콘텐츠도 중요하나 종국에는 '전남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로 확산한 전남에서 살아 보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도시민들의 육구와 생활 패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도시민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몇 번이라도 체험, 숙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협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 유학도 기존 한두 학기 동안 생활하는 프로그램을 넘어 방학 체험 프로그램, 학기 중 도시·농촌 교류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 유학을 통한 귀(歸)농산어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 귀농 프로그램 개발과 확충이 요구된다. 도시민을 위한 인프라 확충도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이다. 소규모 농장과 농막을 활용한 공간 조성 또는 농촌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확대 등이다. 이는 도시와 농촌에 도시민이 머물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는 것으로, 도농 듀얼 라이프의 시작이 되는 동시에 귀농산어촌의 유입 단계로 연결될 것이다.

전남도에서는 러스틱 라이프를 원하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 조성, 일자리 복지 확대, 생활물 유통망 구축 등 소득 창출과 정착 지원 모델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도시민 유입 중심에서 정착 정책으로 전환, 귀농어귀촌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남도 방문의 해는 귀농산어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여행을 통한 미래 삶의 터전으로 농촌의 삶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전남에 머물며 자리 잡고 살아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귀농산어촌 최적지로서 전남을 적극 알리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는 고품격·저출산 등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타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社說

광주·전남 대선 공약 차질 없는 이행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향후 5년간 광주·전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대규모 프로젝트와 관련 정책들의 차질 없는 이행이 필수적이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이들 사업의 국경 과제 채택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미래 100년을 위한 8대 분야 20개 사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여야 정당에 요청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5개 사업을, 국민의힘은 8개 사업을 반영했다. 양당이 공통으로 수용한 공약은 군 공항 이전 종전 부지에 그린 스마트 펀(Green Smart Fun) 시티 조성, 인공지능 메타버스 융합 신산업 육성,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미래 자동차 융합 스마트 산단 조성, 아시아 문화콘텐츠 허브시티 조성 등 여섯 개 사업이다. 반면 광주와 인근 다섯 개 도시를 묶는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광주형 공기 신산업 특화단지, 국가 감치 문화 산업단지, 호남권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 광주아시아 아트스퀘어 조성 등은 양당의 공약에서 누락됐다.

전남도도 모두 70개 사업을 발굴해 대선 공약 채택을 건의했다. 이 중 민주당은 29개, 국민의힘은 24개 사업을 각각 반영했다. 양당이 공통적으로 수용한 전남 관련 공약은 우주산업·신재생 에너지·농수축산업·바이오산업 육성, 광양항 육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다.

그동안 대선 공약에 반영되더라도 역대 정권의 성향에 따라 국가사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났다. 광주 지역 대선 공약 이행률은 박근혜 정부 때 14.5%에 그쳤지만 문재인 정부는 80%대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공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조만간 꾸러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국정 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와 지역 정치권은 관련 사업의 국비 확보와 미반영 사업들의 추가 채택을 통해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열 중 아홉이 화장' 시설 확충 서둘러야

화장터를 구하지 못해 장례를 사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가동률이 140%를 기록할 정도로 늘 과부하가 걸려 있다. 영락공원 측이 최근 예비 화장로 한 기를 추가했다고는 하지만 외지 사람까지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시설 확충 없이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화장터가 부족하다 보니 순천과 목포로 원정 화장을 다니는 유가족들도 생기고 있다. 번거로운 것도 문제지만 4일장에 따른 비용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해결책은 서둘러 화장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화장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인구 145만 대도시에 화장터가 한 곳뿐이라니 말이 되는가. 이윤섭 광주시장(은 가동 시간을 늘려서라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마봉책임 뿐이다.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불편함까지 더하는 일이 없도록 화장 시설부터 늘려야 할 것이다.

화장터를 구하지 못해 장례를 사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가동률이 140%를 기록할 정도로 늘 과부하가 걸려 있다. 영락공원 측이 최근 예비 화장로 한 기를 추가했다고는 하지만 외지 사람까지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시설 확충 없이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화장터가 부족하다 보니 순천과 목포로 원정 화장을 다니는 유가족들도 생기고 있다. 번거로운 것도 문제지만 4일장에 따른 비용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해결책은 서둘러 화장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화장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인구 145만 대도시에 화장터가 한 곳뿐이라니 말이 되는가. 이윤섭 광주시장(은 가동 시간을 늘려서라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마봉책임 뿐이다.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불편함까지 더하는 일이 없도록 화장 시설부터 늘려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제2차 세계 대전이 배경인 영화 '피아니스트'를 본 사람이라면 작품 속에 흐르던 소량의 음악을 잊을 수 없다. 영화의 도입부, 주인공 스피elman이 폴란드 국영방송국에서 폭탄 소리를 들으며 '녹턴'을 연주하는 모습이나, 도망 중 독일 장교를 만난 그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연주하던 '발라드 1번'은 목격할 울림을 준다. '피아니스트'는 폴란드 피아니스트 블라디슬로프 스피elman(1911-2000)의 수기가 원작이다. 영화를 만든 감독 로만 폴란스키의 어머니와 여동생 역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다.

예술의 힘

최근 우크라이나 소년의 연주 영상이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폭격과 함께 고품경보가 울리는 상황에서 텅 빈 호텔 로비 피아노 앞에 앉아 담담히 연주하는 소년의 모습을 외신 기자가 촬영, SNS에 올려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소년이 연주한 곡은 드라마 '루프이아기'(2020)에 삽입된 '학교 가는 길'(Walk to School). 이 곡을 만든 세계적인 작곡가 필립 글래스는 "이 음악이 정치적인 작품이 될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우리가 절대 마주하기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 작곡가인 폴 레오나르드 모건 역시 "누군가 삶의 가장 끔찍한 순간에 우리 음악으로 위안을 얻었다는 데에 말 못할 감동을 받았다. 음악은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힘이 있는 듯하다"고 했다.

피아니스트 손얼음은 최근 연주회에서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파란색, 노란색 드레스를 입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우크라이나 작곡가 니콜라이 카푸스틴의 곡으로 지난 해 음반을 발매했던 그는 SNS에 "우크라이나 땅에 한시라도 더 버틸 평화를 찾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평화를 기원했다.

광주의 예술가들도 광주정신 메이홀에서 'NO WAR-우크라이나에 평화를'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고 있다. 작가들 뿐 아니라 시민들 누구나 평화와 반전의 메시지를 담은 그림과 글 등을 내걸 수 있는 전시다. 평화의 정신은 예술을 통해 멀리 퍼져 나간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